

# 국내 서양화단 대표 원로작가 황영성 화백 별이 된다

### 6·25전쟁 중 광주 안착 독보적 회화 '가족 이야기' 구축 조선대 교수·시립미술관장 등 미술계 기여...발인 30일

'가족'의 근원적 그리움을 갈구해온 국내 서양화단의 대가 원로 황영성 화백(전 조선대 교수)이 2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6개월 여전부터 재활병원에 머물러온 그는 지난 26일 갑자기 상태가 위중해져 전남대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27일 별세한 황 화백은 형태를 단순화시켜 하나의 구성적인 가족도를 구축해 독특한 회화세계를 발전해 화단의 일단 주목을 받았다. 그의 회화는 사각형의 화면을 평면 분할한 화폭으로 국내에서 호평을 받으며 단박에 화단 중심으로 부각되면서 서양화단의 거목 반열에 올랐다. 평면 분할된 사각형에는 물고기와 새, 집, 여자, 등 등이 축소돼 배치돼 안정감과 다양한 스토리를 구현해냈다. 이를테면 하나의 이미지가 개체이면서 전체가 되고, 수많은

정체가 또다시 하나가 되는 순환고리가 매우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게 표현돼 흥미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형식적 다양성은 물론 내용적 깊이까지 더해졌다.

그가 생전 마지막 회화세계를 결산한 성격의 전시로는 2023년 전남도립미술관(2023.11.14~2024.2.18)에서 열린 '우주 가족 이야기'로 50년 회화인생을 반추했다.

황 화백은 초기인 1950년대에는 구상회화에 전착했으며, 2000년대 들어와서는 다양한 매체의 실험을 시도한 입체 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회화를 관통하고 있는 가족은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6·25전쟁 당시 광주에 정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6·25한국전쟁으로 인한 인운한 가족 및 고향과의 이별로부터 기인됐다.

작가에게 가족은 소박한 시골집 가족에서부터 대자연의 못 생명들로 확대되고 마



고 황영성 화백

침내 세상 만물의 공생을 담은 '우주 가족'으로까지 확장됐다. 초창기 소와 가족, 마을, 개울, 들판, 외양간, 초가집 등 서정적이고 목가적이고 향토적인 소재가 주류를 이뤘다.

'가족'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에 바탕을 두면서 세상과 화복을 잇는 다각도의 작품

세계를 선보여온 황 화백은 남도 화단의 맥락 안에 있으면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자유분방한 화법을 탐구해왔다.

작가는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까지 남도의 자연 교감과 감흥에 바탕을 둔 자연주의 구상회화에 전착했으며, 1970년대로 넘어와서는 마을과 가족의 개념을 회색조

회화로 변용시키는데 주력했다.

또 1980년대에는 마을과 산야를 넓게 내려다보는 부감 시점을 택하면서 싱그러운 생명력의 기운을 목가적인 녹색의 전원 풍경으로 표현한 작품을 주로 선보였으며, 유럽 곳곳의 해외여행과 더불어 고대 문명 탐방으로 펼쳐지는 작품을 잇따라 내놓았다.

2000년대 진입해서는 조형적 호기심과 탐구욕이 왕성하게 펼쳐지는 시기로 대형 설치작품을 작업했는데, 이는 우주 가족으로 확대된 천지만물의 도상들이 표현된 수많은 미려함을 시공을 초월한 우주의 행성과 같은 형상을 담았다.

여기다 다양한 재료와 묘법을 통해 실험적 조형세계를 보여주는 가운데 중점된 중이를 기하학적 곡선으로 잘라 붙이는 종이 드로잉과 실리온 파나온색 알루미늄판 도상 표현, 대형 캔버스 가득 명시나 한시를 변형한 문자도 시리즈 등 다채로운 조형적 구성을 완성해냈다.

그의 평생 회화를 관통해온 슬한 '가족 이야기'들은 별세 직전까지의 활동에서 지속됐다.

황영성 화백은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조

선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 1965년 나주 영산포에서 첫 개인전을 열고 난 이후 1967년 국전에 입선하며 6차례의 특선과 1973년 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 화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세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에 이어 정년 후 광주시립미술관을 맡아 지역미술계에 헌신하기도 했다.

미술계를 중심으로 미술인장래위원회가 꾸려져 위원장에 최영훈 전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의 조운성 전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가 맡았다. 발인 날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추모사 등이 거행되고 황영성 화백의 운구행렬은 그가 평생 누웠던 조선대 미술대학과 조선대 본관, 서석동 작업실 등 주요 활동공간을 마지막으로 둘러본 뒤 영락공원으로 향한다.

유가족으로 아들 황정후, 딸 황지아·지은씨 등 1남2녀가 있다. 빈소는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30일 오전 8시 30분이며 장지는 광주시 선영. 문의 062-220-3352.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빛으로 여는 붉은 말의 해...ACC '벽 없는 미술관'

### 내년 1월 6일까지 미디어월서 영상 작품 8편 상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내년 1월 6일까지 ACC 미디어월에 크리스마스를 포함해 새해 인사를 주제로 한 작품 8편을 오후 5~7시 사이에 상영한다.

영상은 각 2분 내외의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가로 36m, 세로 9m에 이르는 대형 ACC 미디어월에서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뤄지는 영상 상영은 ACC에서 진행한 'ACC 전문인-콘텐츠 발굴: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 작품이다. 교육 수료생들은 ACC에서 1년간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제작에 대한 실무와 현장 경험을 익힌 후 연말에 직접 제작한 영상을 ACC 미디어월에 공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8편의 작품은 다양한 크리스마스 모습과 새해 희망을 담고 있다. 눈 덮인 숲속 마을 산타의 선물 공방에서 시작하는 'Ready, Christmas'(김도연 작, 1분20초)을 시작으로 빨간 코

루돌프를 선물로 받고 싶은 아이의 소원을 담은 'Starlight Wish: 소원이 별이 되는 밤'(김해영 작, 2분10초), 크리스마스 트리를 중심으로 빛의 입자들이 시선을 사로잡는 'Tree of Light'(박솔 작, 1분30초), 새해가 선물처럼 열리는 'The Gift of 2026'(성은희 작, 1분5초), 교육 중 만난 다양한 사람과 인연을 땅 속 씨앗의 따뜻한 이야기로 풀어낸 'Winter Bloom'(유미연 작, 1분41초), 문이 활짝 열리면 갖을 쓴 산타의 선물이 기다리는 'Blender 3D 모델링 프로그램', 아나모픽(Anamorphic 3차원 입체영상처럼 보이게 하는 영상 기법), (나노바나나 Nano Banana 구굴 이미지 생성·편집 AI) 등을 배우며 작품을 만들었다.

ACC 창작현장 참여 등 실무중심(3단계)으로 진행되며, 교육기간은 약 1년으로 올해는 585명이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김도연 씨는 "올 한 해 ACC에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머리로만 생각한 아이디어를 ACC라는 무대에서 그려볼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에서 성장한 젊은 창작자, 기획자들이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행복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광주·전남 숨은 기록유산 첫 공개 '목록집'

### 한국학호남진흥원, 2021~2022 기증·기탁 자료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증·기탁받은 호남 국학자료를 정리한 '국학자료 기증·기탁목록집 III'를 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국학자료 기증·기탁목록집 III'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증 또는 기탁된 10개 소장처의 자료 1000여 점이 수록됐다. 목록집에는 소장 경위와 소장처별 종합 해제를 비롯해 주요 자료의 컬러 도판, 고문서·고서·유물 등 유형별 상세 목록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목록집에 수록된 소장처는 광주향교와 광주 양천허서 허수남가, 고흥 동강면계, 나주 나주임씨 송파공종중, 광주 진양하씨 사직공파 표산문중, 영광 청주한씨 7세조 모원계, 광주 임곡 죽산박씨 단구자공 후손가, 곡성 함안조씨 조원규 후손가, 무안 밀양박씨 박영래 후손가, 영광 동래정씨 정기득 종가 등이다.

해당 자료들은 광주시를 비롯해 전남 동·서부권 전역에 고르게 분포한 지역 기록유산으로, 호남 지역의 다양성과 연속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목록집에는 학술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광주향교 유림의 명단을 기록한 수행안(隨行案)을 비롯한 향교 관련 자료와 광주보통고등학교 재학시절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단용표(1912~1998)가 당시 상황을 기록한 '조용표 일기', 그리고 근대기 호남의 유림이자 훈장이었던 박노학(1873~?)이 27년간 한문체로 기록한 20책의 생활일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자료는 모두 이번 목록집을 통해 처음으로 대중과 학계에 공개된다.

도(鎬道)와 호(號)가 성와(省號), 무안과 나주에서 활동했던 근대기 호남의 유림이자 서당을 운영한 훈장,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문체로 자신의 일상생활을 기록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을사년 뱀띠해의 아쉬움 달랠 화가의 '화음'

### '고담 붉은 가을·설경전 송년 음악회' 20주년 무대 황순철 작가 송하동 갤러리서 선율 전하며 작품 선보

2005년부터 딸과 함께 의기투합해 부녀자간 화음의 무대를 꾸려온 지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초창기 함께 했던 딸은 그 사이에 성장해 25세가 됐을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는 음악회가 그만큼 연륜이 오래 됐고, 역사가 꽤 됐다는 의미다. 서양화가 황순철씨의 이야기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잊힐만하면 연말에 '배코음악회'로 돌아오던 그다.

광주미술계에서 거의 사래를 찾지 힘든 작家的 음악회는 '고담(古潭) 황순철 붉은 가을·설경전 송년 음악회'라는 명칭으로 29일 오후 5시 남구 송하동 124-2번지(원효천 2길 8) 소재 작업실인 황순철 갤러리에서 갖는다. 기우는 을사년 뱀

띠해의 아쉬움을 달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고담은 작가의 호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아름다운 선율들과 함께 평면 회화 20여점을 선보인다.

이처럼 음악회를 오랜 동안 끌고 오 수 있었던데는 유년기부터 버들피리와 하모니카를 불며 늘상 노래를 하면서 그림을 그렸던 DNA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율의 리듬 장단에 따라 붓끝과 필력의 움직임이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어줬다는 점을 상기하고 있다. 고사리손으로 그의 음악회에 힘을 보태던 딸내미는 벌써 성인이 됐지만 부친의 유전자를 그대로 대물림 받은 듯하다. 딸내미 역시 피아노 전공의 음악도가 됐고 현재 서울에서 아이돌 활동 중이라고 귀띔한 것만 봐도 작家的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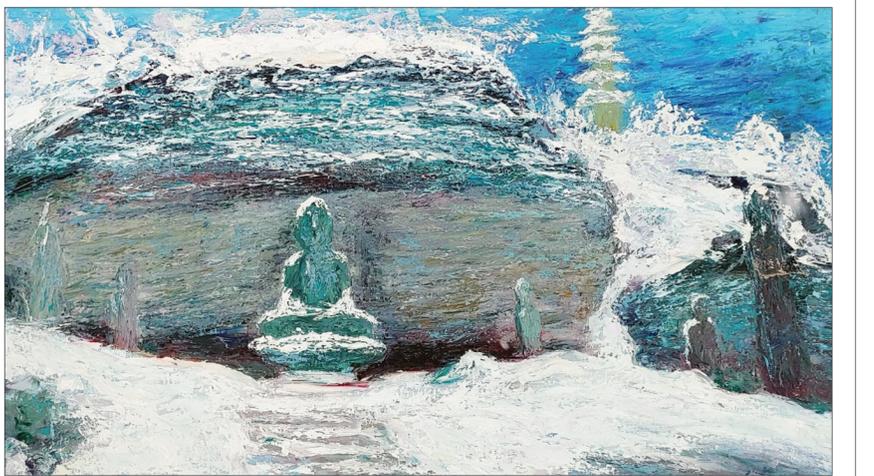
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작가는 분명히 화가이자 서예가로활동 중이지만음악적 끼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셈이다. 이미 20대 초에 시골에서 광주로 올라와 의재 허백련의 연진미술원에서 동양화 공부할 적에도 광주시립국악원을 드나들며 전통관악기 대금을 배웠다고 한다. 이어 40대 말에는 당시 전남대 국악과 김광복 교수로부터 피리를 배우기도 했다.

작가는 음악적 환경에서 회화작업이 훨씬 깊이를 더한다는 믿음을 확신하는 듯 싶다. 이를테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림의 선과 면



황순철 화가



'78th Spring is a landscape with a hidden figure'

이 드러나면서 그 속에 운율과 조화가 흐른다고 밝힌다. 그동안 한국대금명인 원장현·오목대, 첼리스트 윤소희, 기타리스트 서만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창준·이종만 악장, 피아니스트 서현일·박의혁,

바리톤 정진경, 소프라노 김선희 등 내로라한 음악가와 연주자들이 다녀갔지만 올해는 작家的 독주무대로 오붓하게 꾸민다.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When you and I were young,

Maggie'('매기의 추억'), 피아노 선율에 맞춰 'tombe la neige'('눈이 내리네'), '즉흥곡 아리랑' 등 다채로운 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